


주임신부: 김대하(사도 요한) 본당회장: 권병학(요한) TEL : (905) 545-3004 FAX : (905) 545-7895	<div>  </div> <p>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멸망할 것이다. (루카 13.3) </p>
---	--

미사 시간	
미 사	주일 11:00(본당)
	주일 17:30(공소)
평 일	매주 (화) 20:00
	매월 첫 (목) 19:00
성모 신심	매월 첫 (토) 11:00
성시간	매월 첫 (목) 19:30
성사 일정	
고해성사	미사 전, 후
견진성사	2 년에 1 회
유아세례	매월 마지막 주일
혼인성사	6 개월 전 면담
병자성사	병환 중/임종 전
교리 시간	
예비자 교리	주일 10:00, 대철실
견진 교리	
신심 단체	
자비의 모후 Cu	매월 2 주 미사 후
샬렐 Pr.	매주 주일 9:30
평화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8:30
천상의 어머니 Pr.	매주 화요일 11:00
사도들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8:30
사랑하올 어머니 Pr.	매주 화요일 18:50
바뇨 성모 기도회	매월 1,3 주 (토) 10:00
울뜨레야	매월 1 주(목) 성시간 후

A Campaign for the Diocese of Hamilton

총 약정 목표액: \$110,000
 실질 약정액: \$86,409 (10/25 기준) 적립금액(\$76,263)
 ※주소및 신용카드 변동 사항은 총무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당 소식

◎전례 안내

- ▶ 3/ 23(일) 사순 제 3 주일 미사 (본당 11:00, 공소 17:30)
- ▶ 3/ 25(화) 사순 제 3 주간 화요일 (본당 20:00)
- ▶ 3/ 30(일) 사순 제 4 주일 미사 (본당 11:00, 공소 17:30)

◎십자가의 길 안내(매주 금요일 19:30)

- 3/28 꾸리아/바뇌기도회 ▪ 4/ 4 성모회/성가대
- 4/11 주일학교 자모회/복사단/자모회 ▪ 4/18 구역장

※ 각 단체별 봉사자 4 명은 게시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육재는 만 14 세부터 죽을 때까지, 단식재는 만 18 세부터 만 60 세

◎사목회의 ▪ 이번 주 3/28(금) 십자가의 길 이후 양업실

◎구역장 월례회의 ▪ 다음 주 미사 후 양업실

◎우리들의 이야기 (3월 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제단체 및 구역 소개와 장점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는 총무 김성수 베드로 형제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역과 신심단체, 주일학교, 복사단, 전례 해설단, 사목회 등). 완성된 파일은 전례분과장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톨릭 교리서 해설 온라인 교육

- 수강 신청: 이해영 루시아 ▪ 수강료: \$40
- 강의 시간: 3/13 ~5/29 매 주 수요일 (20:00 ~ 21:45)

※ 자세한 사항은 게시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대모/대자녀를 위한 기도 알람

사순시기부터 밤 9 시에 모두 각자 대부모/대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주모경)

◎부활 판공 4/3(목)본당 18:30 부터

◎부활 축하 공연 구역별 단체별

1곡은 성가, 2곡은 자유곡(개사 요망: 구역이름, 부활)

문의: 부총무 박규혜 카타리나

◎2024 시니어 소득 신고 도와드립니다.

이승우(리차드) 형제님께서 수고해 주십니다.

준비된 서류는 재정분과에 3/31 까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 소식

◎복사단, 복사단 자모회 회합 미사 후

공소 소식

◎십자가의 길 안내 매 주 일요일 4:50 pm 시작

(5 분전까지 성당에 도착하시길 바랍니다.)

◎공소 부활 판공성사 안내

3/30(일), 4/6(일) – 미사 30 분전에 시작

◎3 월 공소 축일자 – 3/30 김재근 조시모

구역모임 (소식)

3 월 묵상복음 루가 9,28-36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졌다)

2 구역: 3/23(일) 14:00 천교실

3 구역: 3/30(일) 14:30 천교실

천교 식사

3/23: 2 구역(소고기 무우국 \$5/\$3)

3/30: 3 구역 4/6: 4 구역 4/13: 5 구역

우리들의 정성

지난 주 정성 (미사 참례자: 155 명)			
주일헌금	\$1275	교무금	\$80
감사헌금	\$	성전건립	\$1030

감사합니다. 교구 헌금 가난한 이를 위해 헌금: \$565

도네이션 : 주일학교(심현숙 카타리나)

◎3 월 축일자 명단 (11 명)

3/ 1 알비노(황창환)

3/ 7 테오필로(이정길)

3/12 세라피나(임선녀)

3/19 요셉(정시안, 조용구, 조운형,이인규, 임종선)

3/22 레아 (홍준희)

3/25 그라시아(김경희)

3/31 벤자민(이강현)

성 요셉 성월 기도

○ 우리 주 예수님을 기르신 아버지시요

정결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이시며

임종하는 이의 수호자이신

성 요셉께 간절히 청하오니

● 하느님께 빌어 주시어 저희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충실히 따르게 하소서.

또한 죽을 때에 저희를 지켜 주소서.

◎ 아멘.

사순시기

‘사순 시기’는 ‘재의 수요일’부터 ‘주님 만찬 성 목요일’의 주님 만찬 미사 전까지이다. 이 사순 시기는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파스카 축제를 준비하는 때이다. 모세는 십계명을 받기 전 사십 일 동안 재를 지켰고(탈출 34,28 참조), 엘리야는 호렙산에 갈 때 사십 일을 걸었다(1 열왕 19,8 참조). 예수님께서도 공생황을 시작하시기 전 사십 일 동안 광야에서 단식하시며 유혹을 받으셨다(마태 4,1-2 참조). 이처럼 ‘사십’이라는 숫자는 하느님을 만나는 데 필요한 정화의 기간을 뜻한다. 그래서 이 기간에 희생과 극기의 표징으로 금육과 단식을 실천하며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에 동참한다. 교회는 금요일마다 금육재를 지키고, 재의 수요일과 주님 수난 성 금요일에는 단식재와 금육재를 함께 지키고 있다. 금육재는 만 14 세부터 죽을 때까지, 단식재는 만 18 세부터 만 60 세의 전날까지 지켜야 한다(『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 136 조 참조). 이러한 희생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에 대한 나눔으로 드러나야 하므로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인 사랑의 나눔으로 완성되게 해야 한다.이 기간의 미사 때나 말씀 전례에서는 ‘대영광송’과 ‘알렐루야’는 바치지 않는다. 그리고 제의 색깔은 회개와 속죄를 상징하는 보라색이다.

전례봉사자

날짜	해설	복사	독서자	봉헌자
3/23	김성수 베드로	최다희 보나, 이준우 바오로	1 독서: 박규혜 카타리나 2 독서: 박혜영 수산나	김한욱 에릭 채정희 올리비아
3/30	권희진 요안나	유세진 라파엘, 박수은 헬레나	1 독서: 이은영 힐데가르트 2 독서: 강지원 요안나	박규혜 카타리나 박혜영 수산나
4/6	박규혜 카타리나	최다인 안나, 이준규 안드레아 이준우 바오로, 이지민 이사벨라	1 독서: 김성수 베드로 2 독서: 이재순 데레사	이은영 힐데가르트 강지원 요안나

무화과나무 한 그루와 나

한윤식 보니파시오 신부
오륜대순교자 성지사목 겸 교회사연구소장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는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며 회개하라고 촉구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 말씀 속에 등장하는 한 그루의 무화과나무가 ‘나’와 결코 무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느님이 주인이신 포도밭이라는 세상 속에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나’를 되돌아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열매도 맺지 않고 그저 땅만 차지하고 있어 당장이라도 잘려나갈 처지에 놓인 한 그루의 무화과나무! 이 무화과나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지니고 있을 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에 있어 그리스도인다운움을 드러내지 못하는 ‘나’, 그래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나’일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 예수님 보시기에도 사랑인지 되묻지 않고, 내 방식대로 하는 나만의 사랑에 갇힌 ‘나’일 수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많은 봉사와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실상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믿고 희망하는 것을 똑같이 믿고 희망하며 살아가는 ‘나’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넘어져 있는 ‘나’일 수 있습니다.

비유 속에 등장하는 한 그루의 무화과나무가 천주교 신자로 살아가는 ‘나’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비유 속 포도 재배인이 포도밭 주인에게 청한 ‘올해’를 소중히 여겼으면 합니다. 이 ‘올해’라는 시간이 그리스도인인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의 회개를 위하여 하느님이 인내로이 허락하신 마지막 시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영원을 결정하는 소중한 순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올해’라는 시간을 의식하며, 포도 재배인이 주인에게 아뢴 그 말씀을, 하느님께 바치는 ‘나’의 약속과 다짐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에 제가 그 돌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잘라 버리십시오.”(루카 13,8-9)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며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는 넘치시는 하느님, 그리스도인인 ‘나’는 이 하느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한 그루 무화과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의 이름은 ‘사랑’입니다. 2025년 회년에 맞이하는 사순 시기, 더 많은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돌레를 파고 거름을 주는 ‘나’의 노력이 계속되는 은총의 시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대 철 주 보

배움과 체험의 해
2025 사목지침

<http://cafe.daum.net/stpeteryu>

St. Peter Yu Catholic Church/ 6 Heath St. Hamilton ON L8H 3Y5



사순 제 3 주일

(2025. 3. 23.)

제 1 독서 탈출기의 말씀입니다.3,1-8 ㄱㄴ.13-15
화답송 시편 103(102),1-2.3-4.6-7.8 과 11(◎ 8 ㄱ)



후렴.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
- 네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네 모든 아픔을 없애시는 분. 네 목숨을 구렁에서 구해 내시고, 자애와 자비의 관을 씌우시는 분. ◎
- 주님은 정의를 펼치시고, 억눌린 이 모두에게 공정을 베푸시네. 당신의 길을 모세에게, 당신의 업적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네. ◎

제 2 독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 서 말씀입니다.10,1-6.10-12

복음 환호송 마태 4,17 참조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신다.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복 음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13,1-9